



유럽 대형 보험회사들의 신흥국진출 현황

이소양 연구원

■ 유럽 대형 보험회사들은 저성장 및 저금리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원 개척을 위해 신흥국 보험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 스위스 리(Swiss Re)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영국을 제외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보험산업 성장률은 모두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며 보험침투도를 감안할 때 포화상태에 진입한 유럽 주요국 보험산업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영국의 보험산업 성장률은 2013년 -1.1%에서 7.9%로 상승하였으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스페인의 보험산업 성장률은 각각 2013년 6.7%, 6.6%, 17.3%, 0.7%에서 5.1%, 2.8%, 15.3%, -0.7%로 하락하였음.
 - 2014년 스페인(5.1%)을 제외한 영국(11.9%), 프랑스(9.5%), 독일(6.6%), 이탈리아(9.1%)의 보험침투도는 모두 세계 평균 수준인 6.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제통화기금(IMF)은 유럽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저금리로 일부 국가의 생명보험회사가 자산운용에서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 및 이차역마진 등의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함.
 - 유럽보험감독청(EIOPA)에 따르면 2013년 유럽 생명보험회사의 절반 이상은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였으나 목표 수익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유럽 대형 보험회사들은 잠재성장률이 높은 보험시장(High Growth Market, 이하 HGM, 아·태지역, 중동부 유럽, 라틴 아메리카 및 터기 포함)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음.
 - 2014년 기준 아·태지역 중 중국(3.2%)과 인도(3.4%), 중동부 유럽 국가 중 폴란드(3.2%)와 러시아(1.4%),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브라질(3.6%), 칠레(4.2%)와 멕시코(2.1%), 터키(1.4%)의 보험침투도는 모두 세계 평균 수준인 6.2%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2014년 HGM에서 일부 유럽 대형 보험회사들의 손해보험 영업실적은 부진하였으나 대다수 유럽 대형 보험회사들은 양호한 영업실적을 기록함.

- HGM에서의 유럽 상위 10개 보험회사들 중 Allianz SE, Zurich Insurance Group Ltd의 손해보험 합산비율은 러시아 및 브라질에서 지급보험금이 급증했기 때문에 100% 이상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나머지 유럽 대형 보험회사들의 손해보험 합산비율은 모두 100%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HGM에서의 유럽 상위 10개 보험회사들의 생명보험 부문 마진은 매우 다르지만 금리연동형 및 보증금리가 낮은 보험이 많이 판매됐기 때문에 모두 전체 시장 생명보험 부문 마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한편, 수입보험료 기준 일부 유럽 대형 보험회사들의 HGM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Talanx AG 및 MAPFRE S.A의 손해보험 부문에서 HGM가 차지한 비중은 각각 34.4%, 48.8%를 기록하였으며 Zurich Insurance Group Ltd, Prudential plc 및 MAPFRE S.A.의 생명보험 부문에서 HMG가 차지한 비중은 각각 33.2%, 48.1%, 47.7%로 나타남.

〈표 1〉 유럽 상위 10개 보험회사들의 영업실적(2014년)

(단위: %)

구분	손해보험 부문			생명보험 부문		
	HGM 비중	HGM 합산비율	전체 합산비율	HGM 비중	HGM 마진	전체 마진
AXA S.A.	16.0	98.7	97.6	17.5	49.0	34.0
Allianz SE	9.0	111.3	94.3	15.1	3.6	2.4
Assicurazioni Generali S.p.A.	14.8	96.9	93.8	5.9	21.9	24.0
Zurich Insurance Group Ltd.	12.3	104.6	97.3	33.2	26.5	22.1
Prudential plc	-	-	-	48.1	52.0	46.0
CNP Assurances	-	-	-	14.7	32.1	11.9
Credit Agricole Assurances	-	-	-	-	-	-
Talanx AG	34.4	96.4	101.7	18.6	6.9	1.9
Aviva plc	-	-	-	10.2	7.6	4.1
MAPFRE S.A.	48.8	95.3	95.7	47.7	17.7	12.0

주: "-"로 표시된 것은 해당 보험회사의 데이터가 없어서 집계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자료: A.M. BEST, 재인용.

■ 최근 일부 유럽 대형 보험회사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신흥국 보험시장에서 사업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 2014년 말까지 Allianz SE 및 Zurich Insurance Group Ltd는 영업손실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에서 손해보험 사업을 축소하였으며 브라질에서 손해보험 가격 인상을 단행함.
- 2015년 2월 Talanx AG는 칠레에서 보험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현지 5대 보험회사인 Inversiones Magallanes의 지분 99%를 인수함.

(A.M. BEST, Swiss Re 등)